

# 미 육군, 극초음속 무기 5년 이내 실전 배치

미국 육군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시스'가 워싱턴 타임스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육군 긴급능력개발 기간기술실장 닐 서굿 중장은 지구상 어떤 1시간 안에 타격 가능한 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계획을 밝혔다.

서굿 중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차량에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쏘아올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올 여름까지 시제품을 만들 군수업체를 선정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함께 사이버전, 전자전, 정보전 등 중요 분야에도 주력해 태평양과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전력을 억제할 생각이다.

러시아군은 작년 5월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 긴장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평(東風)-17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새뮤얼 그리브스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MDA) 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극초음속 무기에 맞서고자 요격 미사일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브스 청장은 극초음속 무기의 요격 방안을 모색해온 연구가 끝나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극초음속 무기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상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극초음속 무기의 요격 방식도 선택지에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로는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11년 HVT2 펄콘, 2010년에는 공군이 마하6의 X51 웨이브 라이더 개발에 나섰다가 모두 초기단계에서 중단했다.

# 연방대법 '커튼론' ... "최악의 하모니"

최근 워싱턴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커튼론'이 유행하고 있다. 미국 사법제도의 최고 봉인 연방대법원이 겉으로는 조화롭게 운영되는 듯 보이지만 커튼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내분으로 판결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법관 9명이 법률적 판단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을 넘어 상호 인신공격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10월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캐버노의 취임과 함께 대법원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진보 쪽에서 좌장 루스 킨즈버그(여)를 비롯해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여), 엘리나 케이건(여) 등 4명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의 입김이 강하고 존 로버츠(대법원장),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캐버노가 포진해 있다.

캐버노의 전임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4명 대 진보 4명의 판결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결정적인 표를 던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절묘하게 수행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사전에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절대 보수' 캐버노 취임 후 대중적 관심은 사라졌다. 특히 '이념 이슈'로 분리되는 낙태, 총기 규제, 동성혼 판결은 여지없이 보수가 한 표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수로 전략한 진보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최근 한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또다시 보수 판결이 나오자 진보 4명은 판결문에 각자 반대 의견을 모두 게재해 화제가 됐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1명이 대표로 쓰는 것이 관례다.

반면 보수 대법관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우세했던 진보적 판결들을 빨리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킨즈버그 대법관이 암 치료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토머스 대법관이 옆에서 부축을 해주는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사실 이들 사이에서는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만났다면 싸운다는 이들은 사석에서 "당신 머리 나쁘네." "당신 정말 나하고 싸워볼래?" 등의 험담을 주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00년 대선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 때 중지 결정을 내려 대중적 불신을 받은 이후 약 20년 만에 최악의 하모니를 선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6월 17일 ~ 6월 23일, 2019년

# 띠별 운세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17, 20, 21일    여자 길일 : 18, 19, 22, 23일



머지않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비로 변하여 대지를 축축히 적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일을 급하게 서두르면 이롭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아직은 완전한 때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지 말고 뜻을 펼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으면 서슴치 말고 도와주어야 나중에 복록이 되어 돌아옵니다.  
금전○애정○건강△



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혹 어려움이 생기면 믿을 만한 윗사람인 동료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세요.  
금전○애정△건강○



다른 사람의 의사를 따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윗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겸손하고 유순한 자세를 가지면 복록이 저절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쓸데없는 시비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시 돌아온 격입니다. 새로운 일로서 유망한 사업을 발견해도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문서 관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애정△건강○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분을 지키고 견실하게 노력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넓은 아량으로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생활해야겠습니다. 마음에 확실히 정한 바가 없으면 좋은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운세이므로 뜻밖에 횡재하여 재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를 당하여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으로서, 꾸준히 노력이 요구되는 운세입니다. 혹,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분을 지키고 견실하게 노력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확실한 전망을 세우기가 곤란하므로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계몽을 받아야 하듯이, 훌륭한 선배나 윗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자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산처럼 무겁게 덕을 쌓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산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힘찬 것이 놓여 있으니, 길이 막히어 몽매해지는 형국입니다. 윗사람이나 선배의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섭과 거래는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결실을 얻지 못하더라도 서서히 나아질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어린 기러기가 물가에서 바위로, 육지로, 나무 위로, 언덕 위로, 그리고 구름 속으로 날아가듯이 일의 순서를 알아 나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모하고 경솔하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 못합니다.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뜻 사람들의 선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끈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습니다.  
금전○애정△건강○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동업은 불리합니다. 문서 계약 관계는 분명하게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섭이나 거래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립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제자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금전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